

수 학 보 고 서

소 속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파 견 국 가	스페인	
파 견 대 학	Universidad San Jorge	
파 견 기 간	시작	(2023년/9월)
	종료	(2024년/2월)

준비과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고등학생 시절부터 항상 외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럼에도 교환학생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지 못해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못했는데 뒤늦게 욕심이 생겨 2학년 2학기를 마칠 때쯤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다.
	파견교 지원 과정
	미국을 목표로 준비하고 토플까지 응시했지만 허망했지만 내가 지원할 당시 공개된 리스트에 영어권 국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허망하고 실망스러웠지만 한 학기를 더 기다렸다가 그때도 영어권 국가가 없으면 아예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페인어에도 관심을 두고있던 터라 두 번째로 희망했던 스페인에 지원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디자인 계열에 관심을 두어 관련 과목이 있는 학교를 탐색했고 해당 학교를 찾을 수 있었다.
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	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
	합격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가장 가까운 날짜의 인터뷰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신청을 했다. 모든 행정처리가 느리기로 악명 높은 스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했다. 결국 돈을 주로 따로 대행사에 위탁을 했고 출국 일주일 전에 겨우 비자를 받아볼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후회도 많이 했다. 비행기 가격은 빨리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으니 혹시라도 비자 인터뷰가 늦게 잡혔다면 티켓도 그에 맞춰가면서 구매하는 게 좋을 듯하다. 다시 돌아간다면 블럭국과 신발을 여유 있게 챙겼을 것 같다.
파견학교	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
	마드리드 공항으로 입국했고 공항 근처 호텔을 잡아 호텔의 공항픽업서비스를 이용했다. 호텔에 전화해 나의 현재 게이트 위치를 알렸고 벤을 탑승해 이동했다. 마드리드에서 며칠을 머물다 기차를 타고 사라고사로 이동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고 셔틀버스를 타게 될 만남 장소를 메일로 알려주는데 이틀

	<p>중 하루를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는 정보를 놓쳐 혼자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가는 일도 발생했다. 학교는 사라고사의 시내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시골에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놓치면 일반 시내 버스로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도착해서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학부 담당 교수님과 에라스무스 학생들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인이 없을 것이란 건 예상했지만 동양인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나를 포함해 두 명 밖에 없어서 당황했다. 괜히 주눅이 들어있었던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니 특히 혼자 한국인이라면 실제로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리엔테이션 날에 먼저 말도 걸고 다가오기 쉬운 성격임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p>
	<p>수업 & 학교 활동</p>
	<p>강의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다른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초등학생 중학생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어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발음과 특유의 억양때문에 알아 듣는 데 고생을 했다. 스페인어 실력이 어느정도 된다면 생활이 훨씬 편할 것이다. 모든 수업이 교재 없이 pdu라는 온라인 자료로만 진행되며 교수님들과 코디네이터분들은 친절했다. 스페인 현지 친구들보다는 같은 에라스무스(교환학생)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p>
	<p>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p>
	<p>기숙사가 없어 따로 시내 쪽에 집을 구해 살았다. 학교에 도서관, 협소한 구내식당, 쉬는 공간, 수영장, 헬스장이 있지만 쉬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사용해본 적이 없다. 학교는 대학교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들여 지은 명문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느낌이다. 학생 수도 적어서 수강한 강의들의 학생 수가 각 20명도 되지 않았다.</p>
	<p>주변 환경</p>
	<p>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p> <p>오리엔테이션 때 알려주는 셔틀버스가 정지하는 정류장 정보를 기반으로 최대한 그 곳들 근처로 잡으려 했다. 이데알리스타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고 집주인의 왓츠앱 연락처를 받아 왓츠앱으로 소통했다. 강 한참 아래 Goya역 근처에 거주했는데 위치와 치안이 괜찮았다.</p>
	<p>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p>
	<p>학교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정말 수업만 들으러 오는 곳이다.</p>
	<p>비용</p>
	<p>등록금 (해당 학생만)</p>
	<p>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p>
	<p>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p>
	<p>수업 교재를 모두 온라인으로 배포해서 노트북은 필수다.</p>
	<p>생활비</p>
	<p>월세: 395유로(수도세, 전기세 포함), 보증금 450유로</p>

	<p>생활비: 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 마트 물가가 한국에 비해 아주 저렴해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며 돈을 아낌.</p>
	<p>한달 평균 지출 비용</p>
	<p>200~300만 원 (여행 포함)</p>
<p>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p>	
<p>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반년을 타지에 나가 살며 많은 성장을 하고 돌아왔다. 직접 외국에 나가 생활하며 겪지 않으면 모를 사소한 문화적 차이, 날씨, 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아주 친한 스페인 친구를 사귀고 돌아와 기쁘다.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된 나를 되찾은 것 같아 만족한다.</p>	
<p>사진 첨부 (최소 5장)</p>	
	